



여수박람회 성공 기원 불꽃쇼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1주년을 기념해 26일 여수시 소호 토트장에서 열린 '세계 불꽃경연대회'에서 중국, 포르투갈, 프랑스, 한국 등 4개국 팀이 화려한 불꽃쇼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5면

/명주기자 mjha@

88고속도 '魔의 도로' 오명 벗나

전구간 4차로 확장 공사 착공
“찔끔 공사 악습 되풀이 안돼”

‘사망률 1위, 마의 고속도로’ 국내 유일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불리어온 88고속도로(담양 고서 ~ 대구 옥포)가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88고속도로 구간 중 4차선으로 확장된 담양 고서~담양읍(16.3km)구간과 경북 고령군 성산~대구 옥포(11.9km)구간을 제외한 담양~성산간 7.7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2015년까지 전 구간 확장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전남 주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타당성이 예산을 이유로 수차례

무산됐던 88고속도로 확장이 ‘찔끔 공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 문제 없나=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조6천492억원, 내년 예산에 이미 2천37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상태다. 2009년 이후 완공 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2조2천600억 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경우 감액 가능성은 있어도 예산 조달이 끊긴 적은 없다”며 자신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88고속도로에 대해 여러차례 말을 바꿨다. 지난 2001년 정부는 2010년까지



사고가 일어난 경부고속도로의 치사율 12.39명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뭐가 달리지나=도로공사는 이번 확장공사가 끝나면 담양~성산 구간의 운행거리는 11.9km 줄어들고, 주행시간도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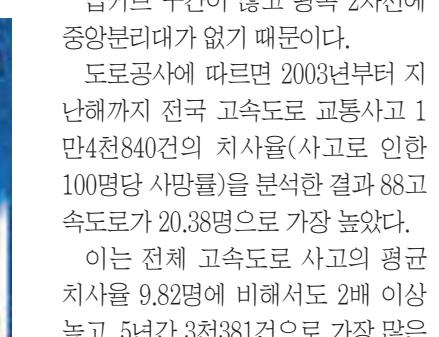
특히 88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됐던 백두대간 핵심구간(지리산 휴게소 인근)의 막을 복원하기 위해 복개터널이 설치된다. 또 앙상동물의 ‘로드킬’ 예방을 위한 동물이동통로 및 동물 유도 울타리로 만들어진다.

/인현기자 ahj@kwangju.co.kr

▲88고속도로=5·18 직후인 지난 1980년 9월 정부가 영·호남 화합을 명목으로 광주와 대구를 최단거리로 이어 남부내륙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건설됐다. 1981년 착공돼 1984년 6월에 개통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평균 치사율 9.82명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고, 5년간 3천381건으로 가장 많은



호남고속철 내년 9월 착공

국토부 내달 기본 계획 수정…조기 완공 여부 관심

정부가 내년 9월 호남고속철도를 착공키로 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정작업이 내달께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의 2012년 조기 완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일 국토해양부는 이달까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계룡산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은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 조사를 벌이고 공사가 끝날 때 까지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 피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송역과 익산역 터미널 구간은 내년 6월 착공하고, 나머지 오송~광주 182km 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9월 착공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올해 말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에 나설 예정이며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해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철도연구원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 호남고속철도

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도 당초 불가 방침과는 달리 내부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정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설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공사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는 오송~광주 구간은 2015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국 땅값 5년동안 68% 올랐는데
광주 19.5%·전남 25% 상승 그쳐

자산가치 상대적 하락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땅값 상승 폭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 자산가치의 상대적 하락에 따른 탄탈감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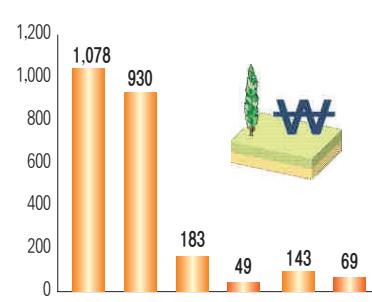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국가자산통계 주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토지자산은 4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03년(41조 원)에 비해 19.5%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68.1%)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토지자산이 69조원으로, 5년간 25.5% 늘은 데 그쳐 전국 증가폭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전남과 수도권 등 타 지역의 땅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는 5년간 토지자산이 101.7%나 늘었으며, ▲충남(101.3%) ▲인천(101.1%) ▲서울(66.9%) ▲경남(54.9%) ▲충북(54.3%) 등도 땅값

■ 지역별 토지자산 현황 (단위:조원)



이 크게 뛰었다.

반면에 광주·전남은 땅값의 상대적 하락세로 전국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토지자산의 전국 비중은 3.6%로, 5년 전(4.9%)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토지자산이 1천78조원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으며, 경기 930조원(28.0%), 인천 183조원(5.5%)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에만 무려 65.9%의 토지자산이 몰려있는 셈이다. 이어 충남 153조원(4.6%)과 부산 143조원(4.3%)의 자산

비중도 증가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총 국가자산은 6천543조원으로, 5년 전(4천427조원)보다 47.8%(2천116조원) 증가했다.

이는 또 7년 전인 2000년(3천390조원)에 비하면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증·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가족사, Power 갑사진



고객센터: 1588-3333-1111
홈페이지: http://www.hansemhospital.com

